

법 어

올해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폭염도 그 끝은 있었습니다. 스치는 바람이 선선하니 기분을 한결 좋게 만드는 절기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의 힘은 그만큼 위대합니다. 무수한 세월이 흘러 쌓이고, 좋은 인연들이 함께 모여 뜻깊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위대함이라 하겠습니다. 국회정각회는 이와 같은 무수한 세월을 함께하며 30년의 역사를 쌓아 왔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정치권과 불교계간의 소통창구로서 불교 발전에 기여한 바가 너무도 지대하기에, 불자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자는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산적한 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는 수고로움 속에서도 불자들은 수행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각(正覺)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수행과 실행에 더욱 힘쓰는 수승한 단체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은 여름이라 덥고, 겨울은 겨울이라 춥습니다. 그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세상살이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처지에 대한 불만과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바다에 빠져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방법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핵심의 방법은 바로 자비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자비의 문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모든 수행의 근본을 자비에 두고 있습니다. 지눌스님은 “수행자는 먼저 남을 구제할 서원을 세워 선정과 지혜를 닦고, 도의 힘이 모이면 자비를 구름처럼 펴서 영원토록 고뇌하는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여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산대사는 “뉘아가는 길이 한량없지만 자비와 인욕이 근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비는 수행의 완성을 위하여 닦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중요시되었고, 그것은 고뇌하는 중생을 구제하고 성불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비행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자비는 자(慈)와 비(悲) 두 낱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말을 풀어보면 ‘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요, ‘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탐욕을 벗어나고 넓은 마음으로 질투심과 분노의 마음을 극복할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은 무수히 많은 대상과 만남을 전제합니다. 수없이 많은 아픔과 슬픔과 하소연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일 것입니다. 정치라는 행위는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일종의 자비행이자 보살행입니다.

우리 불자의원님들은 항상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접수하듯이 기본적으로 보시(布施)·애어(愛語)·이행(利行)·동사(同事)로 점철되는 4가지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을 향한 진심어린 애정을 담아 누구에게나 차별이나 조건없는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항상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국민을 대하며, 몸과 말과 생각으로 국민을 위하여 이익되고 보람된 선행을 베풀며, 국민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고통을 함께하고 화복을 같이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비는 국민과 하나가 되는 동체대비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나와 상대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진리를 체득하고 한 몸이 되어 생활화하는 실천입니다. 세상을 향한 바른 안목과 자비의 마음으로, 좌우상하 옳고 그름에 우선해서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불자 의원님들은 서로 신심을 바탕으로 나라를 위한 마음을 나누는 실로 큰 세월의 인연일 것입니다. 비록 소속이 다르다 하여도 모두 지중한 인연들이기에 인연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을 가져야합니다. 나만을 위한 독선을 버리고 화합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심의 정치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가 부흥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여러분!

여러분은 국민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도록 국정에 임하십시오. 그리하여 비움과 나눔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속에서 저마다의 원력이 빛을 발하고, 사회와 대중을 위한 자비행이 곳곳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9월 4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